공급자요 도움 되신 하나님

민수기 11:10~23

【인도자를 위한 예화】

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고 효율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원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공유했고, 함께 일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팀원들도 각자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어려운 부분을 서로 도와가며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아 업무 부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나누자 프로젝트는 좋은 성과를 내며 진행되었고 그 역시 큰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는 혼자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모세가 혼자서는 백성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 그의 짐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적절한 도움과 동역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거나,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짐을 덜어 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배경 이해하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는 생존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생겨난 갈등을 다룹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는 여정 중에 하나님이 베푸신 만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고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량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보여 줍니다.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시고, 백성에게 몸을 거룩히 하여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정리하고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의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상식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31~32절).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I

만나에 대해 불평하며 고기를 요구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18~20, 23절; 참조, 11:4~6)

하나님은 그분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요구한 사건은 그들의 신앙적 훈련과 시험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불만에 직면한 모세는 지도력에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11~15절).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에 응답해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시며, 백성에게 거룩함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18절). 이후 하나님은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주시고, 백성은 고기를 쌓아 두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이들은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탐욕에 집착했고, 결국 백성의 탐욕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11:31~33).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며, 그 장소를 탐욕의 무

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칭합니다(11:34). 이 사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좇을 때 인생이 파멸로 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적용과 나눔 I

요즘 나는 무엇 때문에 불평하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신하고 불만을 품은 경우가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공급은 잊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 가정, 또는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 무겁게 느껴질 때, 모세처럼 "내가 이 짐을 어떻게 홀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14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함께 나눌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과 동역자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관찰과 묵상 II

백성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셨나요?(13~17절)

모세는 백성의 불평과 요구에 지쳐 홀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과 요구로 인해 더는 홀로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응답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질 동역자를 세우십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워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지는 리더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17절). 그리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한 달간 먹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광야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의 문제에 집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불평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되, 동시에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내를 보여 주십니다.

적용과 나눔 II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도움의 손길과 동역자를 보내 주시도록 간구할 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나 부담을 느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거나, 자기 능력으로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함께 짐을 나누어 협력하게 하십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기보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협력하며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큰 목표를 행해 함께 나아가는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곤경의 자리가 이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